

	<h1>보 도 자 료</h1>	
금융위원회		
	보도 2016.8.29(월) 14:00 이후	배포 2016.8.29(월)

책 임 자	담 당 자	
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		송 용 민 사무관 (02-2100-2663)
금감원 금융투자국장 한 윤 규(02-3145-7010)		윤 덕 진 팀장 (02-3145-7035)
금감원 특수은행국장 오 승 원(02-3145-720)		허 환 준 팀장 (02-3145-7210)
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(02-3145-6700)		김 진 옥 부국장 (02-3145-6702)
금융투자협회 WM본부장 성 인 모(02-2003-9240)		서 동 수 대리 (02-2003-9245)
은행연합회 상무 김 혜 경(02-3705-5212)		윤 현 진 부부장 (02-3705-5236)

제 목 : 일임형 ISA 공시수익률 일제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

- 금감원, 금투협이 일임형 ISA 공시수익률의 적정성을 일제 점검한 결과, 7개 금융회사 47개 MP의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
- 이에 따라, 금감원은 7개 해당 금융회사 임원회의(회의주재 : 금감원 담당 부원장보)를 소집하여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,
 - 특히, 금번 수익률 공시 오류는 실무적인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,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, 재발방지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
- 금융위, 금감원 등은 수익률 공시 관련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 내부 점검체계 구축, 공시 전 외부 점검 강화, 금융회사 대상 전면 재교육 실시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

1. 점검 개요

- ☐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(MP) 수익률을 공시중인 19개 금융회사의 공시수익률*이 금융투자협회의 공시기준에 부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전체 MP**를 대상으로 면밀히 점검(금감원, 금융투자협회)

* 금융회사간 자산운용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,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산
평가, 기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도록 함

** 4개 은행 34개 MP, 15개 증권사 116개 MP 등 총 150개 MP

2. 점검 결과

가. 개요

- MP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, 전체 150개 MP 중 7개 금융회사 47개 MP의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

- 이 중 25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되었고, 22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되었음
- 높게 공시된 MP 중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.1%p이하인 경우가 거의 절반(12건, 48%)이고, 격차가 1.0%p를 초과하는 경우는 4건(16%)
- 낮게 공시된 MP 중 대부분(16건, 73%)은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.1%p~0.5%p 수준이었음

<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 차이 분포 (단위 : MP개수) >

구 분	~0.1%p	0.1~0.5%p	0.5~1.0%p	1.0%p~1.6%p	합계
높게 공시	12	6	3	4	25
낮게 공시	5	16	1	-	22

□ 수익률계산의 오류는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준가* 등을 협회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에 기인

* MP출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MP출시 시점의 자산가치를 1,000(이를 'MP기준가'라 함)이라고 정하고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가를 변경 → 수익률은 기준가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

○ 일임계약의 특성*상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세한 계산원칙을 정하고 이를 모두 준수하면서 MP 수익률을 산출해야 함에 따라, 수익률 산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

*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고 편입상품의 교체도 가능하며 개별 고객이 특정상품의 편입을 거부할 수도 있음

○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,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

□ 한편, 공시전 수익률을 실무부서가 산정한 이후 회사내 타부서의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등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도 없었음

나. 수익률 산정시 오류 발생 주요 원인

(1) MP 기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용자산 가치평가 기준일에 대한 오해

□ (원칙) T일의 MP 기준가는 편입된 자산의 T-1일 평가금액을 기초로 산정 →

(오류) T일의 MP 기준가를 편입된 자산의 T일 평가금액을 기초로 산정

* (예시) MP에 편입된 펀드의 평가금액이 2,000원(7.7일), 2,100원(7.8일)일 경우, 7.8일 MP 기준가 산정시 펀드평가액으로 2,000원을 반영해야 하나 2,100원을 반영

(2) 운용자산 매매결과 반영 일자에 대한 오해

□ (원칙) ISA상품 출시일에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 며칠후부터 투자를 개시한 경우 실제 자산매입시점부터 수익률 산정 →

(오류) ISA상품 출시일부터 자산이 편입된 것으로 보고 수익률을 산정

* (예시) 3.14일 상품을 출시후 3.16일부터 투자를 개시했다면, 3.16일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해야 하나 3.14일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

(3) 비영업일의 수수료 및 수익 반영 여부에 대한 오해

□ (원칙) 일임형 ISA의 수수료, 운용자산 수익 등은 여타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수익률 계산시에는 영업일 여부와 관계없이 경과기간(경과일수/365일)을 계산하여 반영 →

(오류) 경과기간 중 영업일에 발생한 수수료, 수익만 반영하고 비영업일에 발생한 수수료, 수익은 반영하지 않음

※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공시수익률의 차이가 일임형 ISA 고객의 실제 계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* 공시 수익률은 금융회사간 자산운용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가상의 지표로서 실제 수익률과는 다르기 때문

다. 금융회사별 점검 결과 : 7개 금융회사의 수익률 공시에 오류 발생

◆ 금융회사별로 공시된 MP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모두 높은 경우, 모두 낮은 경우, MP별로 높고 낮음이 다른 경우 모두 발생

- (하나금융투자)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
- (삼성증권)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
- (대신증권) 수익률을 공시한 9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
- (미래에셋대우증권)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
- (기업은행)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,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
- (HMC투자증권)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,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
- (현대증권)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, 2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

※ (별첨) MP별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 간의 차이

< 상기 7개사에 대한 엄중한 주의 촉구 >

- 회의일자 : '16.8.29일
- 참석대상 : 상기 7개사 및 관련 협회 임원
- 주요내용 :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①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 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것과, ②향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

3. 향후 대응 계획

- ①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해서는 8.29일 14:00 기준으로 일괄 정정공시
- ②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발송(금감원)
 - 공시수익률 산정 오류와 관련한 주의 촉구 및 수익률 공시 기준 준수 철저, 내부통제 강화 등 요청
- ③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점검 체계 마련
 -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ISA담당부서가 산출한 수익률을 해당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등 제3의 부서가 반드시 검증
 - ※ 제3의 부서 검증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, 금융회사가 공시자료 제출시 체크리스트 점검확인서를 함께 징구
- ④ 수익률 대외 공시 전 외부 점검 강화
 - 금융회사에 대해 가급적 외부 전문기관(펀드평가사, 사무관리회사 등)을 통한 공시수익률 산출 또는 검증을 권고
 -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익률 산출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점검(샘플링 방식) 후 대외 공개
- ⑤ 공시기준 등에 대한 금융회사 대상 전면 재교육
 - 「일임형 ISA 운영 모범규준」 및 공시기준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실무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작성·배포
 - 공시가 예정되어 있는 금융회사*에 대해서는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담당자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 진행
 - * (9월 중 공시 예정) 농협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(10월 중) 대구은행, 한화투자증권, (12월 중) 하나은행

4. 기업은행의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위반

※ 공시수익률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는 별개로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자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

가. 행정지도 사항

□ 금융회사는 MP 운용방법을 변경*할 경우 모든 일임고객(기존 MP유지를 요청하는 고객은 제외)에 대해 변경된 MP를 적용해야 함

* MP내 편입종목 교체, 종목별 투자비중 조정 등

나. 기업은행의 위반내용

□ 금감원 점검 결과, 기업은행은 MP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MP 운용방법을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

다. 위반에 따른 고객 영향 및 손실보전

□ 기존고객에 대해 변경된 MP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MP를 변경하여 운용하였을 때에 대비하여,

○ 2,686명의 고객에게 손실(손실금 합계 : 약 3백만원)이, 16,415명의 고객에게 이익(이익금 합계 : 약 4천7백만원)이 발생하였음*

* 손실고객과 이익고객이 모두 존재하는 이유 : 동일하게 변경된 MP운용 방법을 적용해도 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가입 시점 및 추가납입 시점 등에 따라 고객별 실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

□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8.29일 중 전액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입장

* 이익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이 실제로 운용된 결과이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

※ 동 사안과 관련된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별도 진행 중

별첨 MP별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 간의 차이

(7.11. 현재 누적수익률 기준, 단위: %, %p)

□ 하나금융투자 (4.4~7.11)

MP명	협회 기준 수익률(A)	공시된 수익률 (오류, B)	차이(B-A)
적극형 A	2.58	2.68	0.10
중립형 A	0.20	0.26	0.06
적극형 B	0.13	1.18	1.05
중립형 B	0.95	1.73	0.78

□ 삼성증권 (3.14~7.11)

MP명	협회 기준 수익률(A)	공시된 수익률 (오류, B)	차이(B-A)
ISA 고위험	0.26	0.38	0.12
ISA 고위험 적립	△0.06	0.16	0.22
ISA 중위험	0.72	0.78	0.06
ISA 중위험 적립	0.78	0.85	0.07

□ 대신증권 (3.28~7.11)

MP명	협회 기준 수익률(A)	공시된 수익률 (오류, B)	차이(B-A)
국내형 초고위험	△1.28	△1.40	△0.12
국내형 고위험	△0.99	△1.45	△0.46
국내형 중위험	△0.47	△0.87	△0.40
국내형 저위험	0.48	0.16	△0.32
국내형 초저위험	1.20	0.94	△0.26
글로벌형 초고위험	△0.40	△0.59	△0.19
글로벌형 고위험	0.72	0.48	△0.24
글로벌형 중위험	1.40	1.09	△0.31
글로벌형 저위험	1.21	0.65	△0.56

□ 미래에셋대우증권 (3.14~7.11)

MP명	협회 기준 수익률(A)	공시된 수익률 (오류, B)	차이(B-A)
안정형	1.97	1.70	△0.27
안정추구형(A)	1.65	1.40	△0.25
안정추구형(B)	1.96	1.70	△0.26
위험중립형(A)	1.38	1.23	△0.15
위험중립형(B)	1.89	1.74	△0.15
적극투자형(A)	1.16	1.02	△0.14
적극투자형(B)	1.88	1.73	△0.15

□ 기업은행 (4.11~7.11)

MP명	협회 기준 수익률(A)	공시된 수익률 (오류, B)	차이(B-A)
고위험스마트	0.58	2.05	1.47
고위험플러스	△1.07	0.53	1.6
중위험스마트	△0.4	0.55	0.95
중위험플러스	△0.48	0.02	0.5
저위험스마트	0.61	0.80	0.19
저위험플러스	0.91	1.11	0.20
초저위험	0.62	0.53	△0.09

□ HMC투자증권 (3.14~7.11)

MP명	협회 기준 수익률(A)	공시된 수익률 (오류, B)	차이(B-A)
고수익추구 A1	2.26	2.84	0.58
수익추구 A2	0.51	1.68	1.17
안정성장형 A3	2.07	2.45	0.38
안정추구형 A4	0.98	0.95	△0.03
안정형 A5	0.85	0.87	0.02
고수익추구 B1	2.50	2.18	△0.32
수익추구B2	4.94	5.04	0.10
안정성장형 B3	2.56	2.65	0.09
안정추구형 B4	2.23	2.24	0.01
안정형 B5	1.09	1.06	△0.03

□ 현대증권 (3.14~7.11)

MP명	협회 기준 수익률(A)	공시된 수익률 (오류, B)	차이(B-A)
고위험A	0.64	0.63	△0.01
고위험B	1.16	1.14	△0.02
중위험A	0.49	0.56	0.07
중위험B	0.72	0.78	0.06
저위험A	1.07	1.10	0.03
저위험B	1.01	1.04	0.03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